

미국·중남미·아시아...세계가 ‘소두증 모기’ 공포

〈小頭症〉

‘지카 바이러스’ 지난해 브라질 대량 감염 뒤 빠르게 확산

사람간 감염 가능성...치료제 없어 브라질 ‘임신 자제’ 권고

신생아에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할 수 있는 ‘지카(Zika) 바이러스’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전세계의 공포심도 커지고 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는 26일(현지시각) 지카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약 19건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이날 이탈리아에서도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4건 접수되는 등 유럽에서도 중남미 여행객들 가운데 감염 환자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도 임신부 등에게 발생 지역 여행 자제를 당부하며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는? =지카 바이러스는 뎅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플라비바이러스’ 계열의 바이러스로, 1947년 우간다의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된 후 발견된 숲 이름을 따 명명됐다. 이집트 숲모기를 비롯해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리면 사람에게도 감염된다. 1952년 우간다에서 처음으로 사람 감염이 확인된 후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열대 지방을 중심으로 소수 발병이 확인되다 지난해 브라질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중남미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람간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염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수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발진, 근육통, 두통, 눈 충혈 등의 경미한 증상이 2~7일간 나타난다. 그나마 감염 환자의 80%는 증상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임신부

가 감염되면 태아에게 바이러스가 전이돼 태아의 두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기형인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명 소두증 바이러스로도 불린다. 소두증 태아는 임신 중이나 출생 직후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생존하더라도 정신 지체나 뇌성마비, 시각·청각 장애 등을 겪을 수 있다.

◇전세계 발병 현황 =현재까지 지카 바이러스 발병은 중남미 국가들에 집중돼 있다.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감염 사례가 나온 것을 비롯해 멕시코,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등 중남미 20여 개국에서 최근 환자가 나왔다.

중남미 외에는 아시아의 태국에서도 감염이 확인됐다. 미국 본토와 유럽 등지에서도 환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해당 지역내 감염이 아니라 다른 발병 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와 발병한 해외 유입 사례다. 미국 10여 건을 비롯해 이탈리아 4건, 스페인 2건, 영국 3건 등이 보고됐다.

◇백신·치료약 없다 =지금까지 지카 바이러스의 사람 감염 사례가 많지 않았던 탓에 백신이나 치료약도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뎅기열과 웨스트나일, 치쿤구니아 등 지카 바이러스와 유사한 모기 매개 감염병 등의 백신이 최근 개발 완료됐거나 개발 중이어서 지카 바이러스 백신도 비슷한 양상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소두증 유발 '지카 바이러스' 어떻게 확산했나



26일(현지시각) 브라질 헤시피의 한 마을에서 보건당국 직원이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숲모기 박멸 작업을 하는 가운데 한 여성이 자신의 아이가 살충제를 맞지 않도록 감싸 안고 있다. /연합뉴스

미 공화당, 예비선거 뒤 주류 단일화 분위기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해 내달 초 처음으로 실시되는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 예비선거 결과가 나오면 공화당 내 비주류 주자들에게 밀리고 있는 주류 주자들에게 대한 당 지도부의 후보단일화 압력이 한층 거세질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공화당의 영향력 있는 선거전략가의 말을 인용, “(도널드) 트럼프, (테드) 크루즈만 아니라면 누구든 두 지역 예비선거 강자를 밀어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이들 예비선거에서도 주류 주자들 우열이 뚜렷하게 갈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비주류 주자 트럼프와 크루즈의 대항마가 될 만큼 강한 주류측 주자가 나타나는 시점이 3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으나 그때는 너무 늦은 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공화당 내 주류와 비주류 주자를 막론하고 협약한 유혈 내전이 수그러들지 않음에 따라 누구도 대선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선출직 공직자들과 로비스트, 고액 기부자 등으로 구성된 공화당 주류 지도부는 주류 측 대선 주자들 중 켈 부시 전 지사 같은 열세 주자가 자진하차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같은 자신들의 선호주자가 지지층을 규합할 수 있기를 희망해왔으나, 주류 단일후보를 노리는 주자들 내분은 가열되고 있다.

주류 측 주자들이 상호 공격에 사용한 선거자금에 3500만 달러(한화 4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특히 부시 전 지사가 루비오 의원에게 가하는 집중공세가 파괴적이라는 비판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캐나다 난민 “차라리 수용소로 돌아갈래”

캐나다 정부의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에 따라 최근 캐나다에 입국한 시리아 난민 중 일부가 고립감 등을 호소하며 중동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캐나다 CBC방송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캐나다에 들어온 난민 중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난민과 민간기업 등의 지원을 받는 난민이 있는데, 정부 지원 난민 중 일부가 정착 절차 등이 지연된 탓에 저가 호텔에 기약없이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봉사자 버지니아 존슨은 “일부 난민이 수 주째 호텔에 머물고 있다”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해 일부는 요르단이나 레바논의 난민 수용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전쟁 중인 시리아보다는 상황이 훨씬 낫지만 낯선 땅에 홀로 있다는 고립감을

느끼는 난민이 많고, 캐나다의 추운 날씨 탓에 감기에 걸리고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CBC는 전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민간 지원을 받는 난민들에 비해 정부 지원 난민들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부-루크티는 “막상 와보니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며 “아마도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 한 난민이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자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캐나다 외에 독일, 우루과이 등에 도착한 난민 중 일부도 고독감을 호소했으며, 일부는 시리아 귀국길에 나서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일 위안부 합의 ‘미완의 과제’ 될 듯

일자민당 소녀상 先 철거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12·28’ 합의를 도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합의의 완전한 이행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은 일본 측의 성실한 합의 이행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는 데 합의했지만, 이후 상황을 보면 최종해결은 당분간 ‘미완의 과제’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 측에서 합의 정신에 어긋나거나 양국 간 시비를 일으킬 만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軍)의 관여와 정부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 문제의 성격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군이 직접 강제로 위안부를 끌고 간 증거는 없다면서 위안부 제도 자체의 강제적 성격에 ‘몰타기’를

하는 기존 논리를 반복한 것이다.

지난 14일에는 집권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중의원 의원이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고 망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 한일 합의는 과거 고노(河野)담화 등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했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망언 방지도 빠져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측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세코 히로시게 관방 부장관)는 등 이미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정사실화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한국 정부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도 여전히 불씨가 살아 있는 쟁점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소녀상 철거가 일본 측 기금 출연의 전제 조건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일본 집권당과 언론 등에서 소녀상 선(先) 철거론이 잇따라 제기됐다.

/연합뉴스

유니세프 “北 가뭄에 아동 2만명 영양실조”

유엔 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지난해 북한의 가뭄으로 아동 2만 5000명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이 전년대비 20% 줄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26일(현지시각) 전했다.

유니세프는 “가뭄 영향이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곡물 배급량이 줄어 여성들과 아동들의 영양과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티모티 사프터 북한 주재 유니세프 대표의 가디언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 못하면 아동들이 설사할 위험이 크다.

설사는 영양실조와 사망으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이라며 “가장 심각한 가뭄 타격을 받은 지역들에서 5세 미만 아동들 사이에서 설사 발생이 72%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유니세프가 북한 지원에 필요한 1550만 파운드(약 270억원) 가운데 38%만 지원받았으면서 북한 구호 기금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추가 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면 3월이면 필요한 의약품이 떨어지고 올해 중반이면 영양제 보급품이 고갈되며 매우 성공적인 면역 프로그램도 연말이 되기 전에 기본적인 백신들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비닐봉지 메시 유니폼’ 주인공은 5세 아프간 꼬마

비닐봉지로 세계적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의 유니폼을 만들어 입어 네티즌들을 감동시킨 꼬마 팬이 아프가니스탄 농촌에 사는 다섯 살 소년으로 밝혀졌다고 영국 BBC방송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BBC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비닐봉지 메시 유니폼’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취재한 결과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5세 소년 무르타자 아흐마디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다. 아프가니스탄 중부 자코리 지역에 사는 소년의 아버지 아리프 아흐마디는 BBC



와 전화 통화에서 “사진은 큰아들인 하마윤이 찍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사진 속 소년이 자신의 아들이 맞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회사 사정상 매매

2016년 1월 31일까지
H.010-3605-5000

수기동, 사무실전용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20층, 76평, 즉시입주가
- 사무실 전용, 분할매매 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주차 5대 무료
- 매매-2억(조정가)

월산동,광전빌라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5층, 20평, 2013년도 중공
- 전망좋은, 베란다있음, 관리비저렴
- 현재 보증금 55백만원에 월40만원임대중
- 매매-1억1천만원(웅 6천5백만원포함)

보성,복내면임야

- 보성군 복내면 계산리 산 87외5필지
- 13만평 중 5분의 1지분(26,286평)
- 전기시설완비, 임도 개설되어 있음
- 장기투자 최고물건
- 매매-1억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 중(화순군청)
- 매매-1억원 6천만원(조정가)

돈 되는,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만호초등학교 건너편
- ▶7층 건물중 701호(7층 전체), 120평, 전망최고, 대형주차장
- ▶감정/시세-7억원정도 ▶매매-5억6천만원
- ▶용자 3억 6천만원 있음 ▶보5천만원에 월240만원 임대 가능
- ▶주인 직매함
H.010-3605-5000